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 영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연의 선을 응용한 도자 화기 연구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박미래

자연의 선을 응용한 도자 화기 연구

한 영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박 미 래


인 준 서

박미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박태성 

심사위원 김시관 

심사위원 한영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자연의 변화무쌍한 풍경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아름다움은 살아있는 생동감에서 기인한다. 생동하는 자연은 바라보기만 해도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마음의 위안을 주기도 한다. 인공적인 것들로 둘러싸인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직접 찾아 나서야 비로소 자연이 주는 감정들과 마주할 수 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연구자 또한 가까운 산이나 강 그리고 바다를 찾아가 자연으로부터 많은 위안을 얻었고, 그때마다 자연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본 자연에서 발견한 고유의 선(線)은 자연의 에너지로 응축된 생명성을 느끼게 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자연의 선에서 조형적 표현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연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도자 화기(花器)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화기는 본래 꽃이나 식물의 생명성을 유지시켜주고 자연의 생명을 생활공간으로 들여오는 매개체로서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둘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도자 화기가 자연에서 나타난 선의 표현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단순히 선의 형상을 도자 화기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연의 선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에서 자연으로부터 느꼈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기가 그 자체로도 자연의 선을 연상할 수 있는 오브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한 자연에서 발견한 선을 조형적으로 탐구하였고, 이러한 자연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로 중첩성, 유연성, 연속성, 생명성, 율동성의 다섯 가지 속성으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속성은 객관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조형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요소들을 활용하여 자연의 선이 담고 있는 심상을 조형적으로 화기

에 표현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상화한 도자 화기를 통하여 자연의 선이 예술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자연의 선을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도자 화기로 제작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동기 및 목적	1
2. 연구방법	3
II. 본론	4
1. 자연의 선	4
2. 자연의 선이 가진 속성	6
1) 중첩성(重疊性)	6
2) 유연성(柔軟性)	9
3) 연속성(連續性)	11
4) 생명성(生命性)	13
5) 율동성(律動性)	15
3. 자연의 선을 담은 화기	18
1) 자연의 선과 화기	18
2) 선의 형상화 과정 및 의미	19
3) 제작 과정	21
4. 시작품	24
III. 결론	4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중첩성	8
【표 2】 유연성	10
【표 3】 연속성	12
【표 4】 생명성	14
【표 5】 율동성	16
【표 6】 선의 함축과 면의 확장	20
【표 7】 석고 몰드 제작 과정	22
【표 8】 유약 및 시유 과정	23

시 작 품 목 차

【작품 1】 Mountains and Streams	24
【작품 2】 Leaf Series	25
【작품 3】 Flow Series	26
【작품 4】 Flow	27
【작품 5】 River	28
【작품 6】 Wave Series	29
【작품 7】 Wave	30
【작품 8】 Fluid	31
【작품 9】 Leaves	32
【작품 10】 Bean	33
【작품 11】 Frond	34
【작품 12】 Bloom	35
【작품 13】 Billow Series	36
【작품 14】 Billow B	37
【작품 15】 Billow H	38
【작품 16】 Line Vase Series	39

I. 서 론

1. 연구동기 및 목적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로서, 그 안에서 영향을 받고 무한한 생명력과 에너지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아닌 인공적인 것들로 둘러싸인 도심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자연은 활력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심에서 나고 자란 연구자 또한 자연이 주는 감동을 받기 위해 여행을 가거나 가까운 자연을 직접 찾아 나서곤 하는데, 가까운 산에 올라가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노을 지는 강가의 일렁임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연과 동화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자연은 단순히 생동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이처럼 내면의 감정을 정화하고 평온한 기분을 들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자연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정원을 가꾸거나 실내에 식물을 들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깝게 두고자 한다.

도시에서 자연을 공간으로 들여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화기(花器)를 사용하여 꽃을 꽂는 것이다. 화기는 꽃을 담는 그릇으로 수반, 병, 컴포트, 향아리, 변형화기 등의 종류가 있는데, 실내 공간에서 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근래에 식물을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인 플랜테리어로서 활용되며 현대에는 단순히 꽃을 보존하는 기(器)에서 주거공간의 장식적 요소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화기의 역할 뿐만 아니라, 현대 도시의 주거 공간에서 화기를 통해 자연에서 느껴지는 평온한 심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해 자연의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자연의 선(線)에 주목하였고, 이를 화기에 적용하

여 조형적 표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선은 다양한 형상과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선이 주는 느낌이 자연을 감상할 때 경험하는 심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연의 선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도자 화기에 표현하여 자연에서 나타나는 선을 예술적 소재로 확장 가능한지 확인해 보았다. 또한, 감정에 대한 이입과 조형 요소로서의 자연의 선을 고찰하여 새로운 도자 화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단순한 자연의 모방이 아닌, 자연을 함축적으로 조형화하여 그 자체가 꽃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었다. 평온한 감정이 드는 자연의 선을 응용하여 감상자에 따라 산의 형상이 보이기도 하고, 물결의 형상이 투영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기는 감상자의 시선에 따라 다른 자연을 연상할 수 있어 다각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형태도 일반적인 병이나 수반의 형태의 도자 화기에서 벗어나 화기 자체가 자연의 선을 담은 리빙오브제가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연한 자연의 선을 시각적으로 응용하여 감성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심상을 주는 화기를 제작하여, 꽃을 꽃는 쓰임에서 더 나아가 일상 속에서 화기 그 자체로 자연을 연상할 수 있도록 선을 함축하여 표현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의 의미와 자연에서 나타나는 선에 대하여 살펴보고, 선의 범위를 연구자가 직접 경험했던 자연을 대상으로 구체화 하였다. 그 대상으로는 산, 강, 물, 식물, 파도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자연의 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조형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중첩성, 유연성, 연속성, 생명성, 율동성의 다섯 가지 속성을 도출하였고, 이를 객관적 고찰과 주관적 고찰로 나누어 의미를 정의하였다.

객관적 고찰에서는 자연의 선이 가진 각각의 속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속성이 갖는 특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고찰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첩된 산의 능선, 유연한 강의 흐름, 일렁이는 물결의 선, 식물의 생명력을 품은 선, 넘실대는 파도의 율동적인 곡선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특성을 이미지와 함께 표로 정리하였다. 정리한 각각의 특징은 연구자의 심상을 반영하여 자연의 선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였고, 이 과정으로 자연의 선이 가진 조형적 특징을 활용하여 심미성 있는 도자 화기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제작 과정으로는 모티브가 되는 자연의 선을 하나의 면으로 확장하여 형태를 입체로 구상하였다. 의도한 선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화기는 석고로 원형을 만든 뒤 이를 석고 몰드로 제작하였다. 몰드를 이용한 제작 방법에서 선의 표현과 함께 단단한 형태감을 보여주고자 백자 소지로 슬립 캐스팅하였고, 미니멀한 형태에서 선을 강조하고자 백자에 단색조의 유약으로 마무리 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주관적 고찰에서 활용한 이미지들에서 추출한 색감을 바탕으로 유약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청자유를 시작으로 푸른 녹색의 녹청자유, 노란빛이 도는 황유, 백매트유와 투명유까지 백자를 기본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II. 본 론

1. 자연의 선

자연과 선을 각각 정의하자면, 선은 물체의 윤곽을 이루는 부분¹⁾으로 사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자연은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성하고 움직이며, 소멸되거나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은 보는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 예로는 중첩되어진 부드러운 산의 능선을 바라보면 온화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주상절리에서 나타나는 대각선에서는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선은 무수한 형상을 띄며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축적과 반복을 통해 확장된다. 예를 들면, 퇴적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퇴적층은 침식과 퇴적을 오랜 시간 동안 되풀이하며 고유의 선이 형성된다. 자연은 이처럼 반복되는 생명의 성장 과정을 통해 공통된 선을 만들어내고 이 윤곽은 형태를 만든다. “사물의 형태는 에너지 흐름의 도표다.”²⁾라는 수학자 다시(D'Arcy)의 말처럼 자연을 잘 관찰해 보면 생장의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구자 또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연이 가진 고유의 선을 발견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자연이 지닌 고유의 에너지와 심상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자연의 에너지가 응축된 선의 이미지를 조형화하여 도자 화기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연상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완만하고 정적인 부드러운 선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선

1)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2) 다시(D'Arcy), 『성장과 형태에 대하여(On Growth And 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7, p.120.

이 가지고 있는 고요하고 평온한 이미지를 착안하여 감상자에게도 같은 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었다. 부드럽고 유연한 선은 자연이 가진 고유한 선 중에서 인공과 상반되는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유연하고 완만한 선은 자연을 바라볼 때 특히 고요하고 평온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선은 단순한 곡선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력이 숨 쉬고 있는 유연성을 의미하는데³⁾, 이는 생명의 유기적인 움직임의 흔적이며 이를 통해 함축적인 힘과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 감정의 정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연의 유연한 곡선은 연구자에게 영감을 준 자연인 중첩된 산의 능선, 유연한 강의 흐름, 일렁이는 물결의 선, 식물의 생명력을 품은 선, 넘실대는 파도를 선정하였다. 상기의 이미지들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생명력과 유연성에 주목하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조형 요소로서 활용하였다.

3)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 창지사, 1991, p.218.

2. 자연의 선이 가진 속성

인공의 선은 자연의 선과는 다르게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인위적인 형상을 띄기 마련이다. 그에 반해 자연의 선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동시에 생명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유형의 선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연구자에게 영감을 주고 평온한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은 중첩성, 유연성, 연속성, 생명성, 율동성이 있었다. 이 다섯 가지의 속성은 객관적 고찰에서 일반적인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고, 주관적 고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속성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과 영감을 받았던 자연의 이미지에서 착안한 조형적 특징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를 도자 화기에 적용한 연구작을 표로 정리하였다.

1) 중첩성(重疊性)

① 객관적 고찰

중첩성은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지는 성질로, 앞의 형상이 뒤의 형상에 겹치며 깊이감이 생김과 동시에 전후관계가 생긴다.⁴⁾ 자연의 선에서 중첩성이란 하나의 형상이 여러 겹으로 겹치며 형성될 때 나타난다. 그 예로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산의 능선, 층층이 쌓인 구름, 지층의 단면, 모래 언덕, 잔잔한 물결 등 다양한 자연물에서 중첩된 선을 발견할 수 있다. 겹겹이 중첩된 자연의 선은 순차적으로 반복하며 확장되는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긴 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중첩성의 속성에서는 자연의 시간성과 반복성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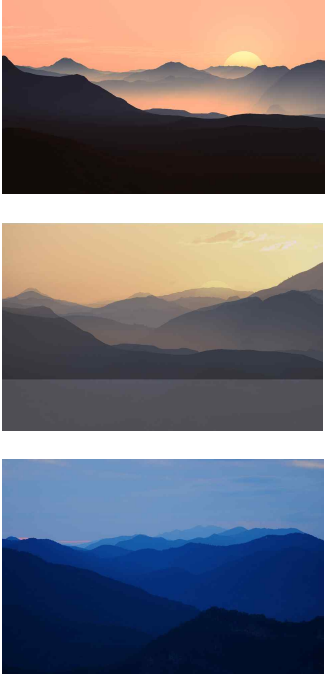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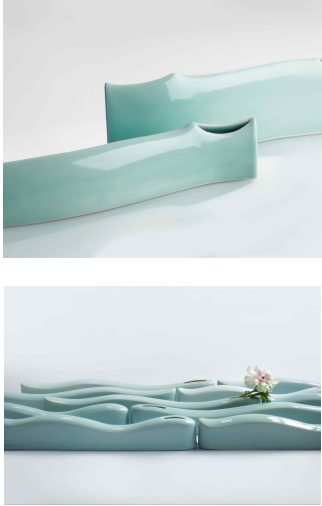
4) 아사쿠라 나오미, 김학성역, 『평면구성』, 서울 조형사, 1999, p.183.

② 주관적 고찰

중첩성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싼 주변의 지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은 오랫동안 침식 작용을 받아 완만한 선을 띄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멀리 보이는 중첩된 부드러운 산의 능선을 눈으로 좇다 보면 어느새 차분해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완만한 선이 주는 느낌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산등성이에서 바라보는 능선은 고요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마치 명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연구자는 이러한 심상이 잘 나타나도록 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첩성이 잘 보이는 자연의 이미지로는 겹겹이 둘러싸인 산의 능선을 선택하였다. 산은 선과 선이 부드럽게 이어져 나가 마치 하나로 연결된 느낌을 주었고, 뻗어나가는 선 사이사이에서 봉우리의 요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중첩성이 가진 심상을 형태적 특징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배치에서도 중첩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사이에 간격을 두고 겹겹이 배치하여 시선에 따라 겹쳐 보일 수 있도록 작품을 디스플레이 하였다.

【표 1】 중첩성

모티브 자연물	착안 요소	선을 활용한 화기
	<p>산봉우리를 타고 내려오는 부드러운 선이 앞, 뒤의 능선과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유연한 선과 같은 형상이 나타난다. 이 선을 하나의 완만한 선으로 응축하여 화기에 적용하였다.</p> <p>멀리서 바라본 오르내리는 산의 굴곡을 부드러운 선으로 표현하여 입체화하였다.</p> <p>능선의 잔잔하고 흐르는 듯한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화기를 겹겹이 배치하여 산이 중첩된 모습을 표현하였다.</p>	

2) 유연성(柔軟性)

① 객관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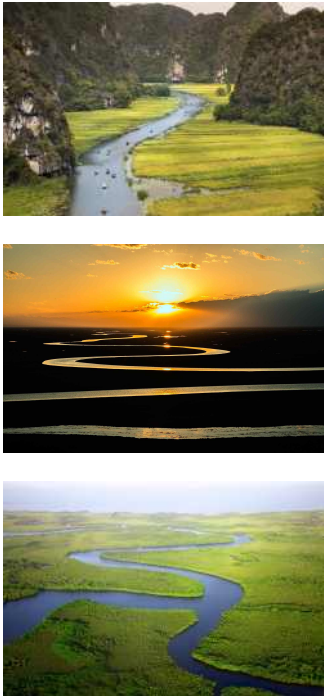

유연성은 부드러운 성질로서, 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며 성장하는 자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주변 환경에 맞추어 적응한 담쟁이 넝쿨, 오랜 시간 동안 강줄기의 흐름으로 형성된 강의 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에서도 유연한 자연의 선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주어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다듬어지면서 부드러운 형태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연에서 유연성은 자유롭게 확장되는 특징을 갖는다.

② 주관적 고찰

유연한 선이 잘 나타나는 자연의 대상으로는 흐르는 강을 들 수 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강의 모습은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유유자적한 모습을 띤다. 강의 흐름은 지형과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흐르는 유연한 속성이 있어, 물길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생기면 그곳을 유연하게 돌아가고 때로는 포용하며 흘러간다. 강의 물줄기는 서두르지 않고 지형에 맞추어 느긋하게 지나가고, 또 어느 곳에서는 잠시 머무르며 온화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은 바라볼 때, 편안한 감정이 들고 긴장이 완화됨을 느꼈다. 급하게 내려오는 폭포와 같은 수직의 선이 아닌, 느긋한 수평의 선을 특징으로 하여 바라볼수록 마음의 여유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유연하게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느꼈던 심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온화한 곡선을 활용하였다. 높은 지대에서 강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난 큰 파상선(波狀線)의 유연한 곡선을 단순화하여 평온한 감정을 담았고, 강 하류의 폭이 넓고 완만한 선을 하나의 선으로 응축하여 유연성을 내포하고자 하였다.

【표 2】 유연성

모티브 자연물	착안 요소	선을 활용한 화기
	<p>유연하게 흐르는 강의 부드러운 곡선을 단순화하여 화기의 전체적인 형태에 적용하였다.</p> <p>오랜 시간 동안 생성된 강의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응축하여 물이 흘러가는 순간을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p>	

3) 연속성(連續性)

① 객관적 고찰

연속성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거나 지속되는 상태로,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연이 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부단히 움직이며 변화해 상호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예를 들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의 모습이나 바람이 불며 형성된 사막의 모래언덕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연결된 연속의 선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연속성은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긴밀히 연관되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끊임없이 넘어가는 성질이 있다.

② 주관적 고찰

사람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나타난 선을 연속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자연을 보다 보면 각각의 것들이 어느새 하나의 규칙처럼 연속적으로 보이게 된다. 연속된 자연의 선을 멀리서 바라보면 처음에는 그 일부만 보이다 점점 확장되어 전체가 보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내면의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연속성의 예로는 일렁이는 물결의 선을 들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물결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어떠한 연속적인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난 지속되는 연속성은 무궁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매개가 된다. 연구자 또한 이러한 물결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어 잔잔한 물결을 바라볼 때 느꼈던 고요한 마음의 정화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미지에서 착안한 요소는 완만한 곡선으로 높낮이의 변화가 크지 않고 주변이 연결되는 것인데, 이를 통하여 차분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물결의 선들이 끊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지속되는 움직임에서 착안하여 연속된 이미지로 표현한 화기를 테이

블 위에 중첩하여 디스플레이 하거나, 벽에 거는 형태는 간격과 높낮이에 변화를 주어 시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연속적인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표 3】 연속성

모티브 자연물	착안 요소	선을 활용한 화기
	<p>일렁거리는 물결의 연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완만한 곡선의 형상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흐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였다.</p> <p>빛에 따라 물결의 색이 달라지듯 유약의 색에도 차이를 주어 표현하였다.</p>	

4) 생명성(生命性)

① 객관적 고찰

생명성은 유기체의 살아있는 성질로, 연속적인 성장과 소멸의 순환 과정으로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생명력이 응축된 씨앗부터 줄기, 잎, 열매까지 성장하며 형성하는 선은 생명의 에너지를 내포한다. 이는 부드럽지만 때로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인하고 단단한 선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이 선은 오묘하고 치밀하며 끊임없이 변화하여 활력을 불어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선에서 생명성은 필수 불가결한 속성이다.

② 주관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식물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선의 생명성에 주목하였다. 식물이 자라는 과정과 결과를 보다 보면 자연의 생명력과 경이로움을 느끼곤 한다. 땅에서 발아한 잎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에서는 생명이 움트는 듯한 힘을 느낄 수 있고, 꽃과 열매를 맺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준다. 식물의 선은 유기적인 방향성을 가지며, 부드럽지만 강인한 생명의 에너지를 내포한다. 이러한 선의 특징을 조형적인 요소로 착안하여 도자 화기에 적용하였다.

우선, 생명성을 내포하는 자연물로 좁고 길게 뻗은 선형잎⁵⁾과 콩을 선택하였다. 잎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호흡을 하는 통로로서 식물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선형잎은 자라나는 식물의 방향성과 힘찬 생명성을 느낄 수 있다. 잎의 이미지에서는 시원하게 뻗은 부드러운 선을 추출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화기에 생명력의 에너지를 함축하여 표현하였다. 콩은 생명성이 응축된 시작의 단계로 희망적이고 따뜻한 느낌이 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웅크린 모습에서 보이는 곡선은

5) 침엽수 따위와 같은 선 모양의 잎.

단단함과 강인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어 이를 화기의 전체적인 형태의 윤곽으로 형상화하여 적용하였다.

【표 4】 생명성

모티브 자연물	착안 요소	선을 활용한 화기
	<p>길게 뻗은 잎과 줄기에서 강인한 생명력의 선을 응축하여 하나의 형상으로 화기에 표현하였다.</p> <p>유연하고 부드러운 생명성의 모습을 잎이 움트기 전의 감싼 느낌으로 해석하여 형상화하였다.</p>	
	<p>둥글게 움크린 모습에서 전체적인 형상을 모티브 하였고, 잎이 발아하기 직전의 모습을 화기의 꽃을 꽃는 부분으로 표현하였다.</p>	

5) 율동성(律動性)

① 객관적 고찰

율동성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하여 움직이는 성질로, 반복적이고 유동적인 움직임에서 포착할 수 있다. 자연의 선에서 율동성은 대체로 곡선적인 형태를 띠며 선의 변화만으로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 예로는 일렁이는 파도의 물결에서 나타나는 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떨어지는 빗방울에서 생기는 파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율동성은 규칙의 반복과 주기에 따라 강약이 조절되어 약할 때는 차분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고 강할 때는 경쾌한 운동감이 표출되는 특징이 있다.

② 주관적 고찰

자연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율동성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가장 적합한 대상은 파도라고 생각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파상선이 주기적으로 교차하며 넘실대는 모습에서 포착된 선의 율동감은 다양한 자연의 형상을 연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자연의 힘인 중력과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파도의 물결은 그 에너지에 따라 잔잔하기도 하고 거세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강한 율동감과 경쾌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파도의 모습을 보며 시원하고 밝은 활기와 리듬감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파도의 너울거리는 이미지에서는 각각의 선이 비대칭적이며 높낮이가 다른 곡선의 특징을 포착하였다. 선이 반복되며 나타나는 율동적인 곡선은 연속적인 특징과 함께 자유롭고 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하나로 압축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5】 율동성

모티브 자연물	착안 요소	선을 활용한 화기
	<p>파도의 너울거리는 모습에서 나타난 활기차고 율동감 있는 순간의 연속적인 변화를 곡선에 담아 표현하였다.</p> <p>파도가 밀려오는 순간의 모습을 높낮이가 다른 곡선으로 반복 형상하여 율동감이 나타나도록 하였다.</p> <p>연속적인 물결의 움직임을 한 면 혹은 두 면에 담아 평면적인 다른 면과는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율동감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p>	

이상과 같이 자연의 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속성을 중첩성, 유연성, 연속성, 생명성, 율동성으로 각각을 나누어 탐구하였다. 속성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구분했지만 한 현상에서 여러 속성이 중복하여 나타남으로써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각각의 속성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술함으로써 자연이 가진 선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객관적 고찰과 주관적 고찰로 정리하였다.

객관적 고찰에서는 속성이 가진 일반적인 의미와 특징을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 고찰에서는 연구자의 심상과 경험을 통해 속성의 의미를 구체화 하였다. 더 나아가 속성을 발견했던 모티브 자연물에서 조형화할 수 있는 표현 요소를 착안하여 화기로 적용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자연의 선이 가지는 속성에서 조형 표현으로 응용할 수 있었고, 예술적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자연의 선을 담은 화기

1) 자연의 선과 화기

화기(花器)란 꽃을 담은 그릇으로, 꽃과 식물을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들여와 생명을 연장시킴과 동시에 꽃을 돋보이게 해줌으로써 심미적 아름다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꽃꽂이에서는 표현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각과 개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이처럼 화기가 가지는 의미가 단지 꽃을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활 공간에 장식적 요소로 사용되며 그 역할이 확장되었다.

화기로 연구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화기가 자연의 선을 표현하는 대상인 것과 동시에 사용자가 꽃을 꽂으면서 화기에 자연이 가진 선을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꽃꽂이에서 화기는 자연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선을 표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어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쓰임이 일맥상통하였다. 그래서 자연을 공간으로 들여오는 쓰임과 함께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자연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이 들 수 있는 도자 화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대 도심의 주거 공간에서 화기를 통해 자연에서 느껴지는 평온한 심상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자연을 감상하다 보면 완만하고 부드러운 선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선은 고요하고 평온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화기에 이러한 자연의 선을 접목하여 일상에서 편안한 마음이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단순히 자연 그 자체의 모방이 아닌, 자연의 생명력을 내포할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선을 조형화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자연에 나타나는 선의 속성을 바탕으로 선을 구상하고, 입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화기로 제작하였다.

기존의 화기 제작에 관한 연구들은 병, 향아리, 수반과 같은 전형적인 형태에

구체적인 소재를 표현하는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하나의 주제를 기존의 익숙한 화기의 형태에 형상화하는 것이 아닌, 자연의 선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실용성을 조화롭게 접목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태적으로도 일반적인 화기와 다르게 낮고 긴 형태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상의 화기를 시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낮고 긴 형태의 화기는 그 자체가 선적인 특성을 가지며 자연의 선을 연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의 선들이 서로 어우러지듯 테이블에서도 화기의 높이가 낮아 마주보는 상대와의 자리에서 시야에 방해 없이 실내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한두 송이의 꽃과 가지로도 장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연의 선을 단순화하고 함축한 화기는 실내에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일상에서 화기에 담긴 자연의 선을 감상자가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선의 형상화 과정 및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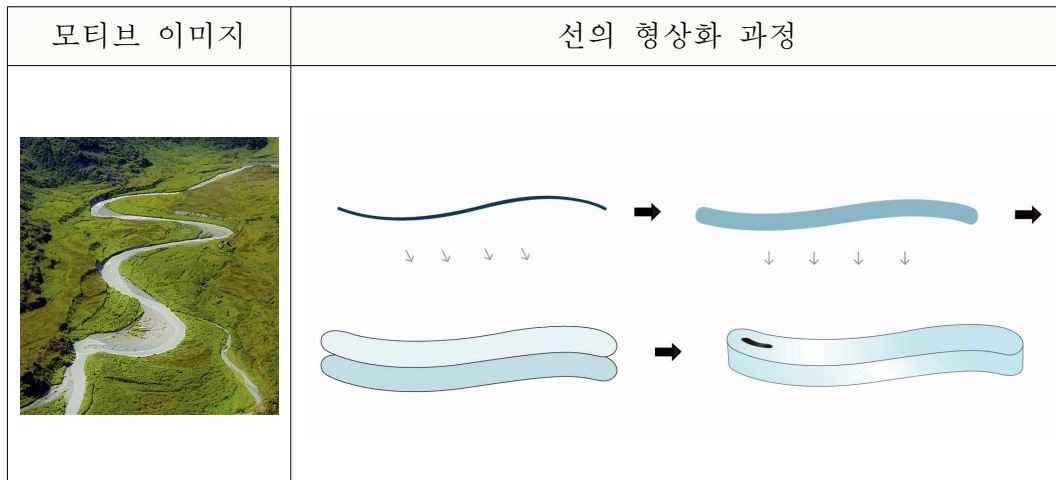
자연의 선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우며 다양한 심상을 전달해 주는 형상이다. 그중 연구자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던 자연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선을 해석하여 입체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형상화 과정에서는 먼저 선이 가진 다섯 가지의 속성이 잘 나타나는 모티브 자연물에서 조형적 요소를 착안하여 디자인하였고, 이 선은 자연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함께 하나의 응축된 선으로 단순화하였다.

형상화 과정으로는 연구자의 심상을 바탕으로 바라본 자연의 선을 일차원적인 하나의 선으로 함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응용하여 선이 그 자체로 하나의 형태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선의 두께를 늘려 면으로 확장하며 입체화하였다.

이때, 선의 특성이 잘 나타남과 동시에 자연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 형태를 구성함에 있어 선 이외의 요소를 줄이고자 전체적인 형을 단순화하였다. 그래서 형태적인 특징에도 전체적으로 선적인 긴 형상이며, 기물의 단면과 전에서 선의 실루엣이 나타나게 하여 선의 형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의 함축과 면의 확장 과정을 통해 조형적으로 입체화하였고, 자연의 이미지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연구자의 감정을 담아 표현하였다. 이는 자연의 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내 감상자들이 내포한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었다.

【표 6】 선의 함축과 면의 확장



3) 제작 과정

이번 도자 화기 연구에서는 선적인 형태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 위해 백자 소지를 이용하여 슬립캐스팅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제작 방법으로 슬립캐스팅 기법을 선택한 이유는 연구자가 의도한 정제된 선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부드러운 선과 반듯한 표면의 기물을 만들기에 가장 용이했기 때문이다. 캐스팅한 기물은 반복 제작한 뒤, 균집을 이루게 배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자연의 선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을 잘 보여주기 위하여 장식은 최대한으로 줄여 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식법으로 단색조의 유약과 형태로 마무리하였다. 유약의 표현은 차분한 자연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 청자유 개발을 시작으로, 푸른 녹색의 녹청자유, 노란빛이 도는 황유, 백매트유와 투명유까지 다섯 종류를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유약 시유는 발색을 위해 담금 시유한 뒤, 스프레이 시유로 마무리하여 표면의 유약을 두껍게 만들어 기물의 전 부분에서 선이 잘 나타나도록 하여 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형과 석고 몰드 제작

모티브가 되는 선을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 석고 원형을 제작하여 의도한 선과 비례에 맞도록 제작하였다. 석고 원형을 다듬으면서 본래 의도했던 선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해석한 평온한 심상을 주는 자연의 선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완성된 화기 원형에 대한 석고 몰드를 만들어 반복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6】 석고 몰드 제작 과정

<p>제작 과정</p>			
<p>설명</p>	<p>압축 스티로폼으로 원형을 제작하기 위한 틀을 만든 뒤 내부에 석고를 주입한다.</p>	<p>석고 원형은 의도한 선이 잘 보이도록 다듬고 표면을 마무리한다.</p>	<p>완성된 원형은 비누칠한 뒤 석고 몰드를 제작한다.</p>

② 슬립 캐스팅

석고 몰드에 슬립을 주입하는 드레인 캐스팅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캐스팅하는 시간을 오래 두어 기벽을 두껍게 성형하였다. 이는 캐스팅 기물이 주는 가벼운 느낌을 탈피하고, 유약을 두껍게 시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두꺼운 기물은 무게감을 주어 더 안정되고, 유약의 발색도를 높여 깊이 있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작업들은 좁고 긴 형태의 특성상 건조 및 소성 시 변형이 쉽게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백자 슬립에 알루미나를 8~16% 첨가하여 형태 변형을 최소화함으로써 의도한 선이 잘 표현되고 작품의 미감과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었다.

③ 시유 및 소성

자연의 온화하고 평온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실험하여 개발한 유약을 활용하여 장식하였다. 색상으로는 푸른 물빛의 청자유, 녹음 짙은 숲의 색인 녹청자유, 노을 빛을 담은 황유, 그리고 순수한 자연의 백색을 담은 투명유와 백매트유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유약들은 자연의 선이 가진 차분하고 깊은 느낌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다. 방법으로는 담금시유를 하고 표면 위에 스프레이 시유로 두껍게 마무리하여 원하는 색을 구현할 수 있었다. 시유 후 유약에 따라 환원, 산화 가마에서 1250도로 소성하여 제작하였다.

【표 7】 유약 및 시유 과정

<p>제작 과정</p>		
<p>설명</p>	<p>유약의 발색과 농도를 실험하여 적합한 유약을 만든다.</p>	<p>담금 시유 한 기물은 건조기에서 건조시킨 뒤 스프레이 시유로 마무리한다.</p>

4. 시작품



【 작품 1 】 Mountains and Streams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

26 x 9 x 28.6cm, 47.3 x 8 x 13.5cm, 48.4 x 7 x 9cm

【 작품 1 】 Mountains and Streams는 식물을 품는 가장 큰 그릇인 녹음 짙은 산의 능선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산의 능선을 지긋이 보다 보면 내면 속의 어떤 마음과 중첩된다. 이처럼 바라보는 이의 경험과 직관에 따라 다른 모습을 투영하여 교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의 외형적 형이 주는 안정감과 더불어 청명한 푸른빛의 청자유를 사용하여 산이 능선이 주는 편안한 감정이 들도록 하였다.



【 작품 2 】 Leaf Series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

47 x 5.7 x 4.3cm, 47 x 5.5 x 4cm

화기는 자연의 생동감을 들여오는 기(器)로, **【 작품 2 】 Leaf Series**는 길게 뻗어 나가는 잎의 생명력을 화기에 표현하였다. 잎의 형상에 변화를 주어 4가지의 유형을 제작하였는데, 각각의 형태마다 윗면의 형상이 다르게 성형함으로써 시리즈화 하였다. 그리고 벽에 걸어 장식할 수 있는 벽걸이형과 테이블에 올려 두는 센터피스형을 각각 제작하여 공간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 작품 3 】 Flow Series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

47.5 x 5.7 x 5.2cm, 33 x 5.4 x 4.7cm, 10.3 x 5.9 x 5cm

【 작품 3 】 Flow Series, 【 작품 4 】 Flow는 큰 강줄기를 위에서 본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각각의 작품이 모여 만드는 리듬감에서 생명력을 갖도록 하였다. 연결된 곡선을 따라 보다 보면 여유롭고 무심한 듯하지만 유연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이 내면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자연스러운 유기적 곡선이 긴장을 완화하여 평온한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 작품 4 】 Flow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

38 x 7.5 x 12.5cm



【 작품 5 】 River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

54 x 7.9 x 4.6cm

【 작품 5 】 River는 은은하고 평화로운 잔잔한 강 표면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유유자적한 느낌을 주도록 제작하였다. 유연하면서도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화기에 담아 그 위에 피어난 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번 작품은 화기의 쓰임에서 더 나아가 테이블웨어 센터피스로서 작은 다과나 음식을 플레이팅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작품 6 】 Wave Series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

32 x 3.5 x 5.4cm, 29.3 x 4.2 x 9.7cm,

40 x 3.5 x 5.1cm, 10 x 4.3 x 13.5cm

【 작품 6 】 Wave Series는 일렁이는 물결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물결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절제된 곡선으로 디자인하였다. 각각 작품의 높낮이에 변화를 주어 물결에 입체감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작품을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너울거리는 물결의 율동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벽에 걸 수 있는 형을 추가하여 마치 폭포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물결의 모습도 나타내어 공간을 장식할 수 있었다.



【 작품 7 】 Wave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산화소성

10 x 4.3 x 13.8cm, 10 x 4.3 x 13cm

【 작품 7 】 Wave 시리즈는 오전의 눈부신 빛에 반사된 투명한 물결, 노을을 담은 오후의 빛, 낮에 나뭇잎이 비취 녹색을 띠는 등 각각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물빛의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유약을 사용하였다. 물결의 표현이 잘 보이도록 두 가지 타입으로 제작하여 서로 겹치는 모습에서 연속적으로 흐르는 물결의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 작품 8 】 Fluid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

47.5 x 4.8 x 5.8cm

【 작품 8 】 Fluid는 비오는 날, 처마 끝에 맺혀있는 물방울들이 일렁이며 움직이는 모습과 같이 물이 맺혀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화기이다. 물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의 선을 일상의 공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작업은 자연의 선을 작품의 바닥면에 표현하여 화기에 꽃는 꽃이 물을 머금은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 작품 9 】 Leaves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

47.5 x 4.8 x 5.8cm

【 작품 9 】 Leaves는 시점에 따라 잎의 윤곽선이 달리 보이는 점에서 영감을 받아, 나뭇잎의 선을 절개하고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한 줄기에서 뺏어져 나온 각각의 잎들이 서로를 가리지 않는 모습에서 공존하는 자연의 생명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한 원형에서 서로 다른 면에 투각하여 식물 내면의 생명감을 담고자 하였다.



【 작품 10 】 Bean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산화소성

10.3 x 5.9 x 5cm

【 작품 10 】 Bean은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담고 있는 콩을 하나의 응축된 선으로 조형화하였다. 생명을 위한 에너지가 하나로 함축되어 있는 콩은 자연의 선중에서 단순하지만 가장 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콩이 발아 하면서 잎이 나오는 모습을 화기에 옮겨 담아 경이로운 생명의 순간을 담고자 하였다.



【 작품 11 】 Fronde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산화소성

52 x 11 x 8.7cm

【 작품 11 】 Fronde는 양치식물의 길게 갈라진 잎에서 구상하여 추상화한 작업이다. 힘차게 뻗어 나가는 선이 가진 에너지를 함축적으로 담아 공간에서 생동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유연하고 곧게 뻗은 선으로부터 식물의 생명성을 담고자 하였다.



【 작품 12 】 Bloom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

39.8 x 6.1 x 4.5cm

【 작품 12 】 Bloom은 파도가 밀려 들어오면서 퍼지는 일렁이는 선의 느낌을 담은 수반이다. 침봉을 사용하여 꽃을 꽂는 수반의 형태로, 선적인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도의 여운이 잔잔하게 숨 쉬는 기(器)로, 바닷가에 가서 멍하니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느끼는 평온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작품 13 】 Billow Series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

22 x 7.5 x 4cm, 25 x 5.3 x 7cm, 34 x 4.6 x 4.8cm

【 작품 13 】 Billow Series, 【 작품 14 】 Billow B, 【 작품 15 】 Billow H는 파도의 큰 선을 더 세분화하여 작업한 작품으로, 각각의 선들이 물결치는 느낌을 주어 생동감 있는 선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특히 결에 주목하여 조금씩 변주를 주어 각각의 미묘한 차이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유기체적 성격을 만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 면에 선을 집중하고 다른 면들은 단순화하여 더 극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작품 14 】 Billow B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

8 x 8.3 x 10cm



【 작품 15 】 Billow H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

8 x 7 x 24.5cm



【 작품 16 】 Line Vase Series

백자토, 슬립캐스팅, 1250℃ 환원소성/산화소성

45 x 40 x 13.8cm

Ⅲ. 결 론

인공적인 것들로 가득한 도심의 복잡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상에 활력을 주는 자연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찾고자 한다. 연구자 또한 이 에너지를 얻고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연을 감상하며 아름답고 다양한 자연의 선(線)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평온한 심상을 가져다주는 자연의 선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고, 이를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자연의 선을 도자 화기로 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상에서 향유하는 오브제로서 도자 화기의 예술적 표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연의 선들 중 온화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곡선을 응용하여 도자 화기(花器)로 형상화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연구자가 경험한 자연인 “중첩되는 산의 능선”, “유연한 강의 흐름”, “일렁이는 물결의 선”, “식물의 생명력을 품은 선”, “넘실대는 파도의 율동적인 곡선”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선의 고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중첩성, 유연성, 연속성, 생명성, 율동성의 다섯 가지 속성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객관적 고찰에서는 각각의 속성이 가진 일반적 의미를 정의하였고, 주관적 고찰에서는 속성이 잘 나타나는 자연물의 이미지에서 연구자의 심상을 바탕으로 작품제작에 응용한 조형 요소를 착안하여 정리하였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해석한 조형적 표현 요소는 다음과 같다.

중첩성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반복적 특징을 조형 요소로서 활용하였고, 유연성은 단순화하여 온화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연속성에서는 비슷한 형상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어 연결되는 특징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생명성은 식물의 강인한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을 함축하여 형상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율동성에서는 경쾌한 리듬감을 나타내고자 선의 점진적 변화와 함께 단순화 과정을 통해 표현하였다.

자연의 선이 내포하는 심상을 위의 제시한 다섯 가지 속성을 바탕으로 도자 화기에 표현함으로써 선이 주는 부드럽고 충만한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연물이 가진 특성을 그대로 투영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조형 의식과 미감을 접목하여, 선의 함축과 면의 확장을 통해 입체화하였다. 이렇게 형상화한 화기는 조형 요소로서 자연의 선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일상에서도 자연에서 느꼈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개가 되어주었다. 또한, 화기가 연구자가 생각하는 자연의 선을 표현하는 대상임과 동시에 꽃을 꽃는 사람이 의도에 따라 자연의 선을 만들어내며 함께 완성되는데 의미가 있었다.

화기는 꽃의 생명력을 보존하여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둘 수 있는 수단이자, 화기에 꽃을 꽃지 않을 때에도 테이블에서 자연의 선을 표현하는 센터피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 현대 도심의 주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었다. 화기의 형상 표현에서 낮고 긴 형태라는 기존의 화기와는 다른 형태를 시도하여 자연의 선이 가지는 평온한 심상을 담는 것과 동시에 선이 가진 의미가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도심의 주거 공간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제작에 있어서는 감상자가 볼 때 자신의 주관적 해석과 감정을 작품에 이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형태적으로 자연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도자 화기는 자연이 가지는 선의 조형적 표현을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연의 선을 도자 화기에 응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작업이 비슷한 톤의 유약으로 장식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앞으로 이를 보완하여 유약의 톤 변화와 표현수단을 화기에서 테이블웨어로 확장하여 자연의 선을 일상에서 더 가까이 향유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 창지사, 1991
- 아사꾸라 나오미, 김학성역, 『평면구성』, 서울 조형사, 1999
- 다시(D'Arcy), 『성장과 형태에 대하여(On Growth And 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7

<학위논문>

- 범영순, 「자연에 나타난 선을 활용한 패션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20

<웹사이트>

-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ABSTRACT

A Study of Ceramic Vase Design Applying the Lines in the Nature

Park Mirae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s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beauty we feel when we see the kaleidoscopic scenes of the nature is attributable to the sense of vitality. We feel a wonder even if we just see the nature, and sometimes, we feel consoled by the nature. The people living in the downtown surrounded by the artificial structures may well face the nature only if they go out for it. The researcher who has grown up in the city have been much consoled by the nature when going out for the mountains, rivers and seeing nearby. The researcher would see the nature, while contemplating it.

The original lines discovered in the nature the researcher has contemplated for long made a feeling that a life was condensed into the energy of the nature. The researcher discovered a possibility of the formative expression in such lines of the nature, and thereupon, attempted to contain the feeling of the nature in a ceramic vessel. The flower vessel plays the role of maintaining the life of flowers or plants, and functions to

keep the nature nearby in our ordinary life. Furthermore, the researcher saw to it that the ceramic flower vessel would serve to expand the lines shown up in the nature.

The researcher attempted not to move the natural lines onto the ceramic vessel but to evoke the emotion of the nature felt in the ordinary life. This study was aimed at suggesting a possibility of the ceramic vessel as an object reminiscent of the natural lines.

To this end, the researcher explored the natural lines seen and experienced personally in the ridges of the mountains, the gentle river flows, choppy swell, the plants harboring the life force, and the undulating waves. Thus, the common attributes of such natural things were determined as follows: overlap, flexibility, continuity, life and rhythm. The researcher reviewed each attribute, focusing on its objective meaning and then, interpreted it subjectively to infer its formative elements. Then, the researcher used such elements to express the images contained in the nature on the flower vessel.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attempted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expressing the natural lines artistically through such formative ceramic vessel. After all, the researcher produced a ceramic vessel where the audience can enjoy the natural lines in their ordinary life.